

불법 보조금 혼쭐난 이통사들 ‘잠잠’

3사, 지난 1월 506억 과징금 보조금 70만원서 40만으로 번호이동 전년비 16% 감소 “중소 유통점 더 힘들어질듯”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9 출시에도 이동통신시장이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갤럭시S9의 판매 실적은 전작을 크게 밑돌고, 보조금 경쟁도 시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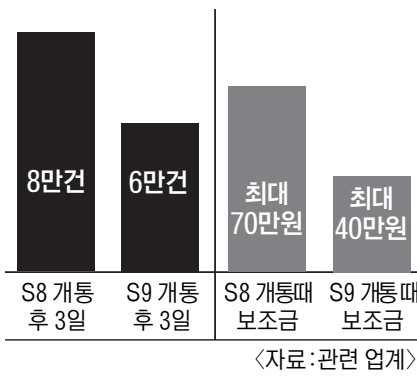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여파에다 25% 요금할인, 갤럭시S9의 제품 경쟁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소모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는 더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이동통신 3사의 전략 변화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9 개통 후 사흘(9일, 10일, 12일)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6만4238건으로 전작 갤럭시S8(8만8052건)의 73%에 불과했다. 갤럭시S9의 실제 개통 실적도 전작의 60~70%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폰 출시 때마다 반복되던 보조금 ‘대란’은 자취를 감췄다.

갤럭시S9 개통 전후로 풀린 보조금은 최대 40만원대다. 갤럭시S8 발매 당시 말개는 70만원대에 이르렀던 것에 견줘 현격히 줄었다.

■ 갤럭시 S8·S9 개통 때 3사 번호이동 건수와 보조금 차이



이동통신 1위 업체 SK텔레콤이 보조금 경쟁에서 발을 빼면서 경쟁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MNO(이동통신) 사업 혁신 노력의 하나로 불법 보조금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며 “단기적인 실적에 치중하기보다는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모적인 경쟁은 지양하고, 미래 가치를 위한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장 올해 5G 주파수 경매와 설비 투자를 앞둔 상황에서 마케팅비를 과도하게 집행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몫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 25% 요금할인으로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졌다.

경쟁사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미 이통 3사는 지난해 4분기 마케팅비로 2조원 넘게 쓰면서 부담이 커진 상태다.

방통위의 제재 여파도 영향을 미쳤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원을 부과했다.

이통사로서는 제재를 받은 지 두 달도 채 안 돼 보조금 경쟁에 나서는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진다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이러한 상황이 지속하면서 올해 1~2월 번호이동 건수(알뜰폰 포함)는 전년 대비 15.7% 줄었다. 갤럭시S9이 구원투수가 돼줄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쳤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정식 출시일인 16일 전후로 보조금 경쟁이 불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오지만, 이통사의 전략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현재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박희정 연구실장은 “자급제폰 유통 채널이 확대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진 상황”이라며 “올해 신규 투자 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통사가 무리하게 마케팅비를 집행할 가능성은 적어 보여 대형 유통망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 유통점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디어로 소통해요” 마을미디어 공동체 모집

23일까지 접수



지난해 진행된 마을미디어 사업 진행 모습.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제공)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광주센터)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고자 하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단체나 주민 모임을 대상으로 마을미디어 교육·활동 지원사업 공동체를 모집한다.

광주센터는 이번 마을미디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과 마을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주민들이 스스로 제작·공유해 주민간 소통문화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광주센터는 마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 교육 및 감사 파견, 제작 실습과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제작과정 멘토링 지원, 지자체 및 지역내 타 단체와의 교류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마을미디어교육 지원사업은 주민 모임이나 지역의 마을 만들기, 미디어 활동 단체라면 어디든 신청 가능하며,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5개 내외의 모임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마을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받으며, 서류심사를 통해 30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심사 과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이야기, 이웃과 겪고 있는 문제 등을 의제화하여, 자기 발언을 시작할 수 있는 대안미디어로서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TV, 라디오, 영화 등)에 대한 계획을 최우선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 마을미디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충실하

며, 안정적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한 모임(또는 단체)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마을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광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이메일(koko0822@kcmf.or.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50-0334.

/전송기자 ej6621@kwangju.co.kr

“아직 쓸 만해요” 천리안 1호 2020년까지 연장 운영

기상 관측·통신 중계 기능

국내 최초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1호의 운영 기간이 2020년까지로 2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천리안위성 1호의 설계수명이 이번 달까지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임무 기간을 2020년 3월까지로 연장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위성의 설계상 수명이 다하더라도, 기술 검증을 통해 위성이 정상 작동함이 확인되면 위성의 임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목적 실용위성 1, 2, 3호의 경우 각각 5년, 6년, 2년 임무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꾸려, 작년 9~10월 천리안위성 1호의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술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성본체 및 탑재체, 지상국 시스템 등 모든 부분이 정상 작동되고 교신 및 궤도유지 상태가 양호하며, 잔여 연료량도 충분히 남아있어 이번 임무 연장 결



2010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푸르주 센터에서 쏘아 올린 천리안위성 1호. (기상청 제공=연합뉴스)

정을 내렸다.

2010년 6월 발사된 천리안위성 1호는 고도 3만6000km에서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기상 관측, 해양 관측, 통신 중계 기능을 담당해 왔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 자전 속도에 맞춰 지구를 돌기 때문에, 지상에서 보기에 늘 고정된 지점에 위치한다.

천리안위성 1호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를 바라보는 ‘우주의 눈’으로 7년간 활동하며

태풍, 안개, 황사 등 기상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 등에 제공해 왔다.

적조나 저염수 확산 등 해양 환경 변화도 국내외 유관기관에 제공했으며 통신방송서비스 및 위성통신 단말기술 검증에도 활용됐다.

다만 지난달 11일에는 위성 본체 메인 컴퓨터에 이상이 발생해 14일까지 사용자 위성 임무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한편, 천리안 위성 1호의 뒤를 이을 후속 정지궤도 위성으로 기상관측용천리안 위성 2A호와 해양·환경 관측용 천리안 위성 2B호가 개발중에 있다. 천리안 위성 2A호는 빠른편 2018년 11월, 2B호는 2019년 하반기에 발사될 예정으로, 최종 발사 일정은 발사업체(아리안스페이스)와 협의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천리안 위성 1호와 2호를 공동운영하게 되면, 동시관측을 통해 고품질의 기상·해양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백업용으로도 활용돼 위성 일시장애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송기자 ej6621@

‘블로그’ 지고 ‘인스타’ 뜨고... 빅데이터로 본 SNS

우리나라 국민의 모바일 활용도가 다른 나라 국민을 압도할 만큼 뛰어나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이동통신산업자협회(GSMA)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모바일 참여지수(GMEI)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다.

온종일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우리나라 국민은 모바일을 이용해 주로 어떤 일을 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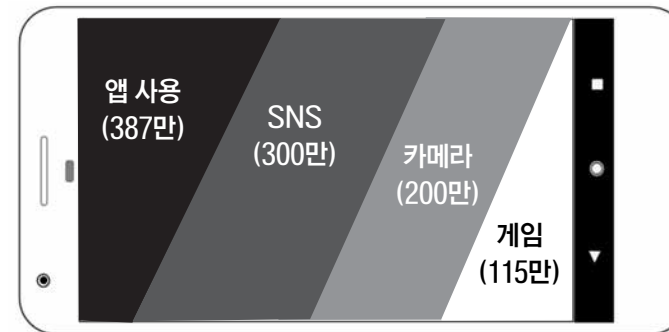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가 최근 분석한 모바일 관련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 모바일 사용 연관이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앱 사용’(387만3452건)이다.

그 다음으로는 SNS(300만3552건)를 언급한 경우가 많았고 카메라(200만8631건), 게임(115만4226건), 인터넷 서핑(107만1550건), 전화(79만6496건), 뉴스(67만13건), 동영상 시청(65만5762건), 쇼핑(62만2207건), 문자(43만8878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어떤 앱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앱 별 빅데이터 언급량의 경우 ‘네이버 앱’이 2015년부터 매

■ 가장 많이 언급된 모바일 연관은?

(단위:건)



년 가장 언급량이 많은 앱으로 집계됐다.

언급량 2위와 3위는 2015년을 제외하고 각각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이 차지했다. 2015년 언급량 2위와 3위는 각각 트위터와 V앱이다.

SNS 가운데 어떤 서비스를 가장 능동적으로 이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매년 업로드되는 게시물 수를 비교한 결과 블로그는 2015년 1억5066만10761건에서 2017년 1억4232만2783건으로 게시물 수가 5.53% 줄었다.

이와 달리 트위터는 같은 기간 21억6803만4099건에서 42억2873만1250건으

로 95.05% 늘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경우 2015년 1억2488만1115건에서 지난해에는 4억2918만8515건으로 무려 243.68% 폭증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급증은 사진을 기반으로 한 게시물 작성의 간편함, 빈번해진 카메라 이용량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분석은 다음소프트가 수집한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의 인터넷 게시물(블로그 5억897만2615건, 트위터 105억5704만1966건, 뉴스 3037만968건, 인스타그램 8억9356만887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장기투자 가치 좋습니다, 회사 사정상 매매함, 010-3605-5000

<h3>덕남동 - 임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0만원 ■ 일사불대폭 조정가 	<h3>비금도, 임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무인도)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있음 ■ 교환가능(현금3억+기타부동산) ■ 매매 - 14억 (대출3억포함) 	<h3>거문도, 토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도로접, 전망 좋음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h3>중동, 근린상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시 중동 1888-1 (라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 좋음 ■ 매매 - 11억 (조정가)
---	--	---	---